



토트넘 주장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클럽 탈퇴



토트넘 주장 손흥민, LAFC 관심 속에 프리미어리그 클럽 탈퇴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주장 손흥민은 토요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을 떠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을 도왔던 손흥민은 이번 결정이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로스앤젤레스 FC가 착륙 가능성이 있는 다른 팀을 찾기 위해 구단이 자신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3세의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그는 일요일 서울에서 열리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선발 출전할 예정이며, 이 경기는 팀과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넣은 손흥민은 "올여름에 이 클럽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스퍼스가 내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23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런던 북부에 왔습니다. 어린 소년이 영어도 못하는 런던에 왔고, 성인이 되어 이 클럽을 떠나는 것은 매우,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라고 발표하는 동안 눈물을 참았던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스퍼스 팬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마치 내 집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내린 결정 중 가장 힘든 결정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지금이 이 결정을 내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한국어로 미래의 경기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LAFC로의 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은 또한 내년 여름 북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출전할 것이라고 한국어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손흥민은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유럽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클럽의 첫 번째 메이저 트로피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갖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렇게 되었고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토토사이트

손흥민은 팀의 최근 성공이 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 함께 강력한 공격 파트너가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토트넘은 2019년 리버풀에 패하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케인이 2023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손흥민은 전 감독 앙게 포스테코글루에 의해 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아들 '스퍼스 전설'

토마스 프랭크는 6월에 포스테코글루의 뒤를 이었고, 덴마크 감독은 토요일에 손흥민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프랭크는 "그는 모든 면에서 토트넘의 전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잉어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뭘 선수 중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지금이 아마도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케인(280골)이 이끄는 토트넘 역대 득점 순위 5위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333경기 출전은 위고 요리스(361골)에 이어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기록입니다.

기자회견 후반에 손흥민은 다음 클럽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월드컵이 고국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경기가 끝난 후 상황이 더 확실해지면 제 미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월드컵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고 그 환경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축구를 할 수 있고 싶고, 이는 앞으로의 의사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